

사자성어로 본 경인년

흉유성죽

〈胸有成竹〉

정 치 2010 경인년은 ‘정치의 해’다. 광주·전남에서만 총 421명을 뽑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경쟁률을 4대 1로 가정한다면 1천684명이 뛰게 된다. 투표용지만 8장이다. 자칫 누가 누구지 모른 채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입지자도 유권자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딱 들어맞는 사자성어가 ‘흉유성죽(胸有成竹)’이다. ‘흉유성죽’은 북송시대 학자 문여가의 친구인 조보지가 문여가의 그림 경지에 대해 ‘대나무 그림을 그리기 전에 마음 속에 이미 완성된 대나무 그림이 있다’(與可畫竹時胸中有成竹 : 여가화죽시 흉중유성죽)라고 표현한 글에서 따왔다. ‘마음 속에 대나무 형상이 있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마음 속에 충분한 계획이 있음을 비유한다. 큰 뜻을 세우고 그 뜻의 관철을 위해 착실히 전진해 나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오수열 조선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치밀한 사전 구상 없이 부분에 의지해 그리다면 훌륭한 그림이 될 수 없듯이 선거 역시 마찬가지다”면서 “입지자는 꿈을 계획하고 꿈을 실천할 수 있는 밑그림을 그려야 하고, 유권자는 그 밑그림을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 정치권은 분열을 끝내고 서로의 힘을 한 군데로 합하여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곧 ‘절전지훈(折箭之訓)’이다. ‘가는 화살도 여러 개가 모이면 쫓기가 힘들 듯 여러 형제나 동료가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



마음속에 이미 그린 대나무 그림

4년만의 지방선거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절전지훈’은 민주당과 야권을 향해 민주개혁세력의 대통합을 이루라는 훈시이기도 하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 제동을 걸고, 한나라당 독주 체제를 깨뜨려야 한다”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모든 민주개혁세력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운외창천

〈雲外蒼天〉

경 제 올해 우리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운외창천(雲外蒼天)과 호시우보(虎視牛步)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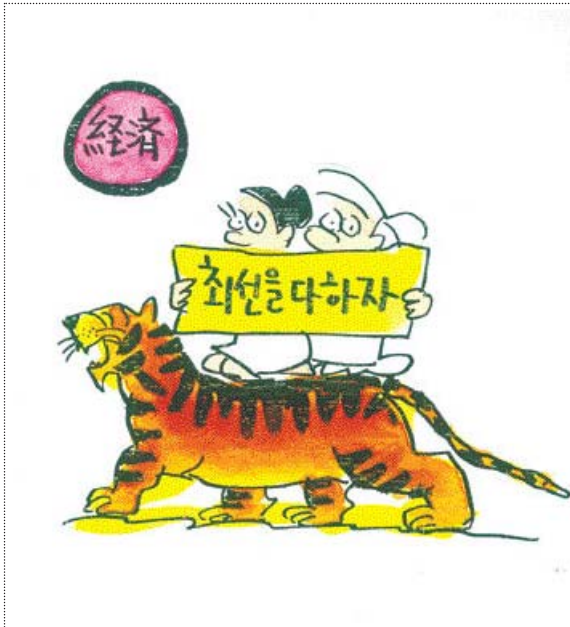
큰 틀에서는 운외창천이란 사자성어가 가장 어울리는 해가 예상된다. 운외창천은 ‘구름뒤의 푸른 하늘’이란 의미로 구름뒤에 푸른 하늘이 비추듯 어려운 시기를 지나 새로운 희망이 온다는 뜻이다.

경인년의 키워드는 ‘희망’이다. 지난해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터널속을 지나온 한 해였다면 올해는 터널의 끝이 보이고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딤(회복된 침체)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경제지표가 이미 최악의 국면을 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산업생산은 물론 소비 등 실물 경제지표들이 상승 곡선으로 돌아섰다.

기업들도 올해는 위기를 탈출하고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맑게 갠 푸른 하늘이 경제 전반에 형성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1년 내내 푸른 하늘만 기대할 수는 없다. 간간히 구름이 해를 가리는 일도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호시우보의 자세가 중요하다. 호시우보는 호랑이처럼 예리한 관찰력과 소처럼 신중한 행보의 자세로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호랑이 해인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예리한 호랑이의 눈처럼 정확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만큼 경



‘구름뒤의 푸른 하늘’ 희망의 빛

실물 경제지표 일제히 상승세

제 전반에 호재와 악재가 혼재돼 우리 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은 물론 가정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춰 주어진 상황에 잘 적응하는 순발력이 요구된다는 얘기가.

천승희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운외창천의 희망을 갖춰 호시우보하는 마음자세로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풍제월

〈光風霽月〉

사 회 지역 원로와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한결같이 2010년 한 해가 지난 해에 비해 한층 밝고 즐거운 소식이 많기를 바랐다. 특히 2009년 한 해가 어느 때 보다 어려웠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커지길 원했다.

이와 함께 지역은 물론 국가의 갈등 양상이 봉합돼 사회가 좀 더 안정되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가 충만하기를 희망했다. 이들이 밝은 한 해를 기원하며 택한 사자성어는 ‘光風霽月(광풍제월)’이다.

‘광풍제월’은 맑은 날의 바람과 비 갠 날의 달을 뜻한다. 비가 갠 뒤의 더없이 깨끗한 풍경을 이르는 말로써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을 뜻하거나 세상이 잘 다스려진 평화로운 상태를 말한다. ‘광풍제월’은 ‘송서’에 시인인 황정견이 ‘주돈이’의 인품을 존경해 표현한 말에서 비롯됐다.

지역 인사들은 “작년엔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각박해지면서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면서 “경인년은 경색된 지역 분위기가 밝아져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부분, 특히 어려운 이웃 등이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 문제 등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표출된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제안된 사자성어는 ‘開過則喜(문과즉희)’다.



맑은 날의 바람과 비 갠 날의 달

사회적 약자들 웃을 수 있는 해

이 말은 맹자 ‘공손추상’편에 나오는 사자성어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뻐한다는 뜻이다. 즉 남이 자신을 비평하더라도 그것을 악으로 여겨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의미다.

우리 지역사회도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해 배척하거나 대립하기 보다는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더 뒤돌아본다면 갈등이 해소되고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영화발외

〈英華發外〉

문 화 2010년 지역 문화계는 어느해 보다 활발히 움직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지금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낼 것이며 아시아 대표 미술축제인 우뚝 선 광주비엔날레 역시 더욱 환한 빛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화계를 아우르는 사자성어는 ‘꽃다움과 아름다움 밖으로 드러나’라는 뜻을 가진 ‘영화발외(英華發外)’다. ‘논어’ 현문(憲問)편에 등장하는 ‘영화발외’는 ‘내면의 선을 힘써 행해서 충만하여 쌓이고 밖으로 드러나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에 있어서 밖으로 드러나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을 갖고 있다. 사람의 덕성을 뜻하는 말이지만 뜻이 확장돼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면 그 위대함이 자연스레 밖으로 드러난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지역 문화계 역시 다양한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문화적 역량이 큰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의 양대 문화 행사인 광주비엔날레와 광주국제공연예술제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중이다.

아시아 대표 비엔날레로 성장한 광주비엔날레는 2010년, 아시아를 넘어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해로 삼고, 지오니 총감독이 전시를 기획중이다. 광주국제공연예술제도 2010년에는 완벽한 준비를 기할 수 있게 됐다. 2010년에는 지난해보다 두배 늘어난 12억원



꽃다움과 아름다움 밖으로 드러나

그 동안 쌓아온 문화 역량 큰 열매

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어느 때보다 준비 기간도 길어 명실상부한 광주의 대표 공연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5·18 30주기와 맞물리면서 문화 행사가 기획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뮤지컬 ‘화려한 휴가’가 찾아오고, 광주시립교향악단은 말리의 교향곡 제 2번 ‘부활’을 300명 규모의 광주시민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올린다. 또 광주비엔날레 재단과 광주시립미술관은 대규모 국제전시회를 준비하고 있기도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